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발벗고 나선다

창업·운영자금 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37억원 투입 나주사랑상품권 5% 할인·공공기관 구내식당 월 2회 휴무

나주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 증가, 온라인·홈쇼핑 구매 등 소비패턴 변화 등을 감안한 '소상공인 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해년 새해 강인구 시장이 발표한 7대 시장 운영 방침의 첫 번째 핵심 현안이다.

시는 총 37억원을 투입해 ▲소통과 협력의 지원체계 구축 ▲창업과 운영자금,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난 해소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의 활력 증대 ▲공공기관 직원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및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운동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총 20억원 규모의 주민소득 용자 지원사업을 통해 연 1%의 저리로,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무담보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의 경우, 원활한 대출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을 통해 40억원의 특별보증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3월부터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기존 2%에서 5%로 상향 판매한다. 판매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3배 상승한 50억원으로 책정하고,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순환경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판매 환전 대행점을 기존 31개소에서 관내 금융기관 등 45개소로 확대해 가맹점 업주와 시민의 편의를 개선하고, 가맹점을 30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처리 시 소득공제 30% 혜택 등 상품권 사용 안내문을 가맹점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 시책을 통해 상품권 사용 생활화를 도모한다.

시는 관공서·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를 도입해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2월부터 월 2회(첫째·셋째 주 금요일)에 걸쳐 구내식당을 휴무하기로 했다. 앞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한전KPS도 지난해 11월부터 월 1회 휴무제를 시행해 식당 상인들의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시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강인규 나주시장이 최근 나주목사고을시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나주시 제공>

대상으로 중식 휴무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관내 전통시장·상점가의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업소당 500만원에 보조하는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2배 상승한 2억원으로 책정·투입한다.

또 나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목사고을시장은 총 9억 3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참

여하는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가 이용하기 운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역민이 함께 공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민이 주체가 돼 우리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참 <나주시 제공>

제2기 '여성친화 서포터즈' 모집

2년간 일상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정책 건의

나주시, 11일까지 접수

나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2기 여성친화서포터즈 단원을 모집한다.

선발된 서포터즈 단원은 3월부터 2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여성친화도시 사업 홍보 및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한다.

앞서 제1기 여성친화서포터즈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일상 속 불편사항 28건에 개선안을 건의하고 아동·여성 폭력예방 홍보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역할을 했다.

시는 오는 23일 나주선거관리위원회 2층 나주문화센터에서 제1기 서포터즈 활동 우수자 시상 및 제2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는 나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청 사회복지과,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또는 팩스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서포터즈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모범 사례는 우리 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손영철 기자 yacson@>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맞춤형 영양교육

나주시는 최근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또는 환경적 여건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내 임신부(임신·출산·수유부 등)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월 2회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식인 쌀(백·현미)을 비롯해, 계란, 감자, 당근, 우유, 과일음료, 검정콩, 미역, 닭 가슴살 등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시 보건소는 보충식품 지원을 통한 영양 문제 해소와 함께 산모, 영·유아의 평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병행,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재주 나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영·유아 또는 임신·출산·수유부 중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영양문제 해소는 물론, 영양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자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힘써갈 계획"이라며,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나주시·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박물관 다채로운 프로그램 호응

'궁중음식 배숙 만들기' 인기 30일엔 '배신제 연계교육'

나주박물관의 배를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박물관은 지난 23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1·2월 체험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즐겼던 동절기 건강식품인 '궁중음식 배숙 만들기'를 진행해 2달 간 총 4회에 걸쳐 160여 명이 참여했다. 배숙은 배를 통째로 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삶아 꿀물이나 설탕물에 담근 것으로 수정과와 일종이다.

특히 참여자 모집 공고 직후, 예약이 조기 마감되면서 프로그램을 당초 2회 운영에서 4회로 확대 조정하는 등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체험 참가자들은 "우리 지역 대표 특산

품인 나주배를 활용해 궁궐에서 임금에 맞췄던 배숙을 가족과 함께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 좋았다"며 "이러한 체험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많은 사람들이 나주배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나주박물관의 문화가 있는 날은 오는 30일 '배신제 연계교육'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배신제는 나주배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일종의 제례 의식이다.

프로그램 내용 및 접수 방법은 다음달 초에 나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나주박물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najupearmuseum>)에 공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061-331-5038)로 문의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기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 배를 활



지난 23일 나주박물관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궁중음식인 배숙을 만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용한 즐겁고 유익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갈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박물관은 나주배의 맛과 효능, 품질 우수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992년 개관했다. 2013년 유물 부족 등 관리·운영상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돼 잠정

휴관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이후 박물관의 부활을 위한 나주시의 재등록 작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유물 기증을 통해 마침내 2017년 8월 제2종 박물관으로 재등록됐다. 현재는 유물 100점 이상을 보유한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주시·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남·전라·제주)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시군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광주지사 010-5655-5678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010-8605-2740